

# 영국발 코로나 변종에 각국 비상...항공편 올스톱

### 유럽·중동·캐나다 입국금지 조치 유로스타 등 육로통행도 제한 코로나 백신 무력화 하지는 않아

왕래가 잦아지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영국서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종이 확산하면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가 비상이다. 영국은 변종이 빠르게 퍼지는 런던 등 남동부에 긴급봉쇄 조치를 단행했고 각국은 재빨리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유럽이 영국을 격리했다"라면서 "변종 코로나19가 크리스마스를 망쳤다"라고 묘사했다.

현재 유럽국가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불가리아 등이 영국에서 입국을 제한 또는 제한할 예정이다. 영국 런던과 벨기에 브뤼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오가는 유로스타 열차도 21일부터 운행이 취소될 예정이다. 유럽 밖에서 터키, 이스라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엘살바도르 등이 영국에서 입국을 제한했다. 미국은 아직 별다른 조처에 나서지 않았지만 같은 북미의 캐나다는 영국발 항공편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는 21일 0시를 기해 48시간 동안 영국에서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화물차 운전자 등 운송업자도 입국할 수 없게 되면서 선박 등에 '화물만' 실어 보내는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해졌다. 영국서 화물을 트럭에 실어 트럭채 프랑스에 들여보내는 일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다.

독일도 이날 자정부터 화물차 등 일부를 뺀 영국과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 운항중단 기간은 일단 이달 말일까지로 독일 정부 관계자는 AFP통신에 운항중단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이미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세인트판크라스 역에서 승객들이 파리행 마지막 기차를 타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영국에서 변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프랑스 정부가 이날 밤 12시부터 48시간동안 영국발 모든 이동을 중단한다고 밝히는 등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여행 제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탈리아는 영국과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최근 14일 내 영국에 머물렀던 사람의 입국도 금지했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이날 "수일 전 영국에서 귀국한 한 명이 변종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격리됐다"라고 밝혔다. 터키는 영국에 대해 마찬가지로 변종이 발견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멈출 예정이고 이스라엘은 영국과 덴마크, 남아공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미국은 아직 영국에서 입국을 막는 등의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 다만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 이날 영국발 변종 코로나19가 뉴욕에 상륙할

것을 우려하며 연방정부가 영국발 입국자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여행제한을 가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을 제외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선 캐나다 정부가 영국발 항공편을 중단시키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으며, 콜롬비아 등 중남미 일부 국가들도 영국발 입국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연말 코로나19 대확산세 속에서 잇따라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반격에 나선 와중에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한 데 대해서도 각국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맷 행콕 영국 보건부 장관은 이날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긴급봉쇄 조처의 정당성을 피력하면서 "변종은 통제 불가능하다"라고 시인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에선 20일 3만5928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돼 하루 보고치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행히도 현재까지 변종의 증상이 더 심하거나 백신을 무력화한다는 진단은 나오지 않고 있다. 판케르크호버 WHO 코로나19 기술팀장은 "현재까지 영국이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변종은 백신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으며 증상에 변화를 주거나 더 심한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4.2광년 밖서 외계인 신호?

### 프록시마 퀘타우리서 전파 포착 캘리포니아대 연구팀 검증 진행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약 4.2광년 밖의 '프록시마 퀘타우리'에서 외계인 신호일수도 있는 전파가 포착돼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 신호가 태양계 바로 옆 또 다른 외계 기술문명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까지 포착된 신호 중에서는 가장 흥미로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신과 과학 전문 매체 등에 따르면 이 신호는 '지적 외계생명체 탐색'(SETI) 연구를 해온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의 앤드루 시미온 박사 등이 이끄는 연구팀이 포착해 외계 문명에서 나온 신호일 가능성을 검증 중이다.

지난해 4-5월 호주 파크스 천문대의 64m짜리 전파망원경으로 프록시마 퀘타우리를 관측한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982.002 MHz의 전파를 찾아낸 것이 단서가 됐다. 이 주파수는 위성이나 우주선용으로 할당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파악된 적이 없다.

SETI 연구에서 전파 신호가 포착되면 지구에서 생성된 것이 아닌지 자동 테스트를 통해 걸러내고 이를 통과한 것만 자세한 검증 과정을 거친다. 대부분이 위성 등에서 나온 것이거나 자연 현상에 의한 것으로 확인돼 탈락하는데, 이번처럼 많은 시험을 통과한 것은 없었다고 한다. /연합뉴스

## 美의회 1천조원 부양책 타결

### 미국 역사상 2번째로 많은 액수 실업자 주당 300달러 현금 지급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회 지도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20일(현지시간) 약 9000억 달러(한화 약 1000조원) 규모의 부양책에 합의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부양책이 올해 3월 2조3000억 달러(약 2535조원)에 이어 미국 역사상 2번째로 많은 액수라고 보도했다.

이번 부양책에 제동을 걸었던 공화당의 미치 매크널 상원 원내 대표는 20일 밤 기자회견에서 "비록 소 미국에 필요한 초당파적 돌파구를 마련했다"라며 양당간 협상이 타결됐다고 알렸다.

이번 부양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실업자에게 주당 300달러(약 33만원)를 현금 지원하는 정책을 비롯해 중소기업 지원, 식료품 지원, 백신 배포, 의료 비용 지원에 6000억 달러(약 660조원)를 직접 투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지난해 소득이 9만9000달러(약 1억1000만원)인 사람을 제외하고 전체에게 한 달당 최고 600달러(약 66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임대료 지원(250억 달러·약 28조원), 내년 1월 말까지 퇴거 유예와 같은 세입자 구제 대책도 이번 부양책에 포함됐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 부양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미국이 당면한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라며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더 많은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일본 스가총리 지지율 40%선 아래로 추락

### 70% "코로나 대응 지도력 발휘 못 해"

지난 9월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내각이 코로나19에 부실하게 대응한다는 국민적 평가를 받으면서 지지를 급속히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19-20일 전국 유권자 1521명(유효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벌여 2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스가 내각을 지지한다는 답변 비율은 39%에 그치면서 40% 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 지지율은 아사히신문의 지난달 조사 때(56%)와 비교하면 17%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한 달 새 20%에서 35%로 15%포인트나 급등했다.

출범 초기에 주요 언론사 조사에서 60-70%의 높은 지지율을 누렸던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이탈하는 현상은 이달 들어 발표된 다른 언론사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NHK의 지난 11-13일 조사에선

스가 내각 지지율이 11월 조사 때보다 14%포인트 떨어진 42%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36%로 17%포인트 치솟았다. 또 마이니치(毎日)신문의 지난 12일 조사에서도 한 달 새 지지율이 17%포인트 빠지면서 40%까지 밀려났다.

스가 내각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주된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에선 전날 전국에서 2천501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마이니치신문 집계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등 최근 감염 확산세가 폭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아사히신문의 이번 조사에서 스가 총리가 정부의 관공지원 정책인 '고 투(Go To) 트래블' 사업을 연말연시에 전국에서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한 타이밍에 대해 "너무 늦었다"고 비판한 답변 비율에 79%에 달했다. /연합뉴스

## 코로나 자가격리하면서 골프 즐기세요

### 태국 골프장 6곳 격리시설 지정 "한국·중국·일본 골퍼들 위해"

태국에서 코로나19 격리를 하면서 골프를 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보건 서비스지원국(DHSS) 타레스 그라사나이라 위원 국장은 현재까지 골프장 6곳이 격리 시설로 신청을 했으며, 급부 말에는 DHSS가 승인하는 골프장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타레스 국장은 해당 골프 리조트에서 골퍼들은 격리를 하면서도 골프를 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골프장 격리 대상은 코로나19 저위험 국가에서 오는 입국객들로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국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와 해당국 태국 대사관이 발행한 입국증명서(COE)도 소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14일간의 격리 기간 3차례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양성 판정을 받으면 골프장과 계약된 병원으로 옮겨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타레스 국장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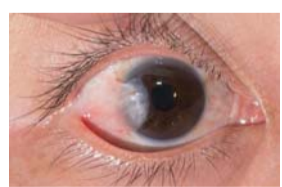
아콤 브라릿수완 DHSS 부국장은 공공보건부가 캐디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방콕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골프장 격리 방안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골퍼들을 끌어들이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신문은 이 방안이 언제부터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굳은살'이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눈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 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산 스피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골드(28)방2	3,210	1,980
	로얄(34)방3	4,890	3,4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방2개)	2,480		1,6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디럭스형 무기명(방2개)	3,110		1,8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